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지만 ...

[짧은 말씀 묵상집 (42)]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마27:49).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싼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마가복음15:35-36)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전 9시경(막15:25, 현대인의 성경)부터 오후 3시까지 못박혀 계시다가 오후3시에(34절, 현대인의 성경)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니까(34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35절),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마 27:49)하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은 “엘리 엘리”라는 예수님의 부르짖음(말씀)을 “엘리야”로 잘못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a) 여기서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들의 정통적 종말관에 따르면 엘리야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러 다시 올 것을 기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하고 부르짖으시니까 그 부르짖음을 곁에 서서 듣고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호크마).

(i) 그러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마 27:49, 현대인의 성경)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49절)하고 말했습니다. 이 조롱적인 어투에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니(호크마) 진짜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원하나 보자라기보다 구원은 없을 것이고 예수님은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그들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

- 이미 “지나가는 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39-40절)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말했을 때에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42-43절)하고 말했을 때에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에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확신했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믿었던 것이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고 마땅히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자들(막 15:32)인 두 강도들(27절)은 예수님을 욕하였는데(마 27:44)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눅 23:39)하고 예수님을 모욕한 것을 보면 그 강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와 다른 강도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 그랬기에 “그 남은 사람들”이 비록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예수님)을 구원하나 보자”(마27:49)하고 조롱적인 어투로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고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라기 4장 5-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현대인의 성경) “보라! 나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

(a)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 시대 때(“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선지자 엘리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는 말씀으로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고 외쳐 개혁케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참고: 호크마). 만일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i)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레 요한이 신약 시대 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습니다(마 3:2). “이는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촉구였습니다”(인터넷).

-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레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사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눅 15:18-19) 그들도 회개하고(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예수님도 공생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하라”(막 6:12)라고 말했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눅 13:5)라고도 예수님은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b)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4장 6절 하반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인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신약 시대 때 어떻게 성취된 것일까요?

(i)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셔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저주로 치시기보다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히4:15, 현대인의 성경)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고후 5:21, 현대인의 성경)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요 3:17, 10:36, 17:18, 21, 23, 25; 요일 4:9, 14) 저주의 나무(신 21:23; 갈 3:13)인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하시사(치시사) 마땅히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죽은(엡 2:1,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살리시고(중생)(딤후 3:5; 참고: 요 3:3, 5, 7)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사(속량)(엡 1:7; 골 1:14)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구원)을 주시고(요 3:16; 요일 3:14, 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영적인 복”(현대인의 성경)(엡 1:3)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마가복음 15:16-20)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1) 여기서 “군인들”은 “총독의 군병들”(마 27:27)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데리고 간 곳은 “브라이도리온”은 “총독 관저”(27절, 공동번역)입니다. 거기서 “온 군대”를 모았는데 여기서 “군대”란 천부장의 지휘 아래있는 300명에서 600명에 이르는 부대입니다. 이 군대가 소집된 것은 무죄한 죄수이신 예수님을 놀이삼아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로 그들은 예수의 주위에 모여 예수의 왕권을 마음껏 놀리고 조롱하였습니다(호크마).
- (2)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막 15:17-18)하고 마가는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마 27:28-29)하고 기록하였습니다.
 - (a)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렸던 의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처럼 보이게 하여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는데(29절)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의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경배하듯 예수님을 경배하며 심히 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호크마).
 - (i) 그들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하고 경례하였는데(막 15:18) 이는 로마 황제 “가이사 만세”라는 로마인들의 황제에 대한찬사의 외침과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이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하찮은 로마 군병들에게 치욕스러운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저들의 조롱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묵히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조롱의 차원에서 예수께 황제에게 대한 모든 예를 갖춤으로써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께 경배하리라”는 시편 22편 27절의 내용을 역설적으로 성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군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호크마).

(b) 총독의 군병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기까지 했는데(막 15:19) 왕에 대한 충성의 표로 입맞추는 대신 가장 모욕적인 행동으로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 (i) 그리고 왕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는 대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는 더 깊이 그분의 피부 속으로 박혀 들어갔을 것이며 얼굴은 더욱 검붉게 물들어 갔을 것입니다(호크마).

간첩과 같은 사탄과 그의 종들은 우리의 틈을 엿보다가 우리에게 어떠한 갈라진 틈이나 허물이나 그릇함을 보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렸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로마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마가복음 12:12-17,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15-22절과 누가복음 20장 19-26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오늘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12:15,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의 “위선”[개역개정은 “외식함”]을 아셨다 라고 마가복음 12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은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한 생각”[개역개정은 “악함”]을 아셨다고 말씀하였고, 누가복음 20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은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함”[개역개정은 “간계”]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 저는 이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함께 묵상할 때 “위선”과 “간교함”은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 여기서 “위선”(hypocrisy)(막 12:15, 현대인의 성경)이란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원래 무대에서 연기를 하거나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이 지

나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하거나(the idea of pretense) 불성실한 태도 (insincerity)와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문맥에서 이 용어는 겉으로는 경건이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내면에서는 죄나 속임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개념은 1세기 유대교의 종교적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예수님은 종종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인터넷).

- (ii) 여기서 “간교함”(craftiness)(눅 20:23, 현대인의 성경)이란 종종 속임수나 교활함과 연관된 영리함 또는 능숙함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교활함을 암시하며, 종종 조작이나 속이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경건한 지혜(godly wisdom)와 세속적인 교활함(worldly cunning)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인터넷).
- (iii) 저는 이 두 단어의 원어 헬라어 의미를 생각할 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은 위선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활한 사람들로서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막 12:14,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였습니다(13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로마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14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 (iv) 한 마디로, 위선과 간교함의 연관성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는 간교한/교활한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간교한 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아마도 간접으로 남편인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자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1절, 현대인의 성경). 그 질문에 그 여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그녀는 그 가장 간교한 뱀하고 말도 섞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

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2-3절, 현대인의 성경). 이 여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2:16-17)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는 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하고 말했다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가벼운 것일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그저 지역적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했지 그 나무가 하나님과 자기의 남편인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는 말하지 않았습시다(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못했다고 생각함). 여기서 가장 간교한 뱀은 그 여자의 갈라진 틈["무너질 것이다!"라는 도비야의 조롱에서 '무너지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벽)의 터진 곳, 갈라진 틈'임(느헤미야 4:3)]을 보고 그녀를 공격한 것입니다(참고: 창 14:15,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빈 틈을 보인 그 여자에게 뱀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3:4-5, 현대인의 성경). 이젠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2:17)과 가장 간교한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말인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3:4, 현대인의 성경)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하는지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6절, 현대인의 성경). 왜 그녀는 이리 선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요 그 이유는 그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요일 2:15,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세상에서 나온 것”인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먹음직스럽고”(창 3:6, 현대인의 성경)]과 눈의 욕심[“보기에 아름다우며”(6절, 현대인의 성경)]과 삶에 대한 자랑[“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6절, 현대인의 성경)](요일 2:16, 현대인의 성경)에 이끌림을 받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은 그녀를 사랑으로 책망

하고 그 열매를 받지 말고 먹지도 말았어야 했는데 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창 3:6, 현대인의 성경).

- 이렇게 아담의 여자 하와에게는(20절) "가장 간교"한 뱀이 있었던 반면에(1절)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는 "심히 간교한" 요나답이 있었습니다(삼하 13:3). "심히 간교한 자" 요나답은 다윗의 아들 암논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일이요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말았어야 할 일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되 억지로 동침한 후 그녀를 "심히 미워"하되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습니다(1-15절).

- 간첩(창 42:9, 14, 현대인의 성경)과 같은 사탄과 그의 종들은 우리의 틈을 엿보다가(42:12) 우리에게 어떠한 갈라진 틈["무너질 것이다!"라는 도비야의 조롱에서 '무너지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벽)의 터진 곳, 갈라진 틈'임(느 4:3)]이나 허물이나 그릇함을 보게 되면(단 6:4, 개역 한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창 14:15,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그의 종들에게 빈 틈을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사탄과 그의 종들은 그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 안에 "그 허물어진 틈"을 잘 "매꾸"지 않으면 사탄은 "그 허물어진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듣게하므로 하나님과 교회 식구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 것입니다.

(2)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그 간교함을 아시고[참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막 12:15,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눅 20:23, 현대인의 성경)] 간교한 사탄 예수님을 시험(유혹)했을 때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마 4:1-11; 약 4:7).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엡 6:11).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간교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가롯 유다는 이미 떠나 버렸을 것이기에 11명의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갔다 (마가복음14:22-26)는 말씀을 묵상할 때 몇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무척 원하였다” (눅 22:15,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자신의 고난과 결부시키고 있는데 따라서 유월절 식사가 단순히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서려있는 기념적인 식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호크마).

(a) 예수님이 무척이나 먹기를 원하셨던 유월절 음식이란 그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로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뿌린 후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것이었다기 보다 장차 이루어질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호크마).

(2)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유월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16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호크마):

(a) “첫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에서 드러났듯이 유월절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는 점이다. 먼저 유월절의 의미가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공동체 국가의 출발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아직도 유대 민족은 참다운 유월절을 성취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즉,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지배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

의 전 영역을 이 피지배자의 위치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유월절이 아니다. 또한 같은 민족이면서도 지도자들은 민중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집권자들의 착취가 민중을 억압하는 상황에서는 유월절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인간의 죄악성이 뿌리채 뽑아져 변화된 사람이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예수는 그 날까지 유월절 식사를 앉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참다운 유월절을 기대하도록 제자들을 이끌고 계신 것이다(Jeremias, Ellis 등).”

(b) “둘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주의 만찬의 친교를 통해 '새로운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다음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될 만찬은 유대의 전통적 유월절이 아니다. 만민이 참여하게 되는 성찬식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만찬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성찬 예식의 전조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행 10:41). 이 새로운 성찬 예식은 예수의 부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시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3)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 이니라” 하셨다(막 14:22)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떡 다섯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요 6:11상).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는 말씀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현대인의 성경)는 의미입니다.

(a)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6장 32-3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떡”이요 “하나님의 떡”으로서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i)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

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하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마 14:19, 현대인의 성경; 요 11:41).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납니다.

(4)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 14:23-24)하는 말씀을 저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할 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믿음으로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참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a)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 1:7).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롬 5:9상).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예수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 10:19-20).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9:14).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 6:54-55).

거리낌이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렸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로마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마가복음 12:12-1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15-17절과 누가복음 20장 19-2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오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마가복음 12:14,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한 3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1)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는 정중한 말을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은 진리와 권위를 갖춘 가르치는 자로 인정한 것으로서 “네가 무슨 권세로”(마 21:23)라고 했던 말투와는 전혀 달리 예수님을 칭찬하고 추켜 세우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호크마).

(a)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선생님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르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지만(2절, 현대인의 성경) 말로는 맞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르친 것을 실천을 하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다면(마 23:3, 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위선자들이지(13절, 현대인의 성경) 올바른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과 제자들에게(1절,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하고 말씀 하셨습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b)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추켜 세우는 전략을 사용

한 것을 생각할 때 잠언 27장 2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서 추켜 세울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뭔가 좀 된 줄 착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교만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만일 우리가 위선자들의 아부성 칭찬 듣기를 싫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도서 7장 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3)라는 칭찬 듣기를 사모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2)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막 12:14,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하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진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또는 ‘당신은 진실합니다’하고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추켜 세우는 거짓된 칭찬 듣기를 좋아하기보다 내주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찢어 우리의 거짓됨이 들춰지는 것을 좋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a) 어느 권사님이 약 28년 전엔가 목사가 될 저에게(그 당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진실하십시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다시 상기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목사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시 33:4, 현대인의 성경)을 정직하게 증언하면서(잠 12:17, 현대인의 성경)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입니다(왕상 18:3,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진실하게 섬기는 진실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욥 6:25,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진실한 목사는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요일 3:18, 현대인의 성경).

(3)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은 예수님에게 “...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막 12:14,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했는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으십니다(갈 2:6; 엡 6:9,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요 7:24, 현대인의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불순종하여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를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은 우리를 범죄자로 선언할 것입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a)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11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거리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3:23, 현대인의 성경).

(i) 만일 우리가 말로만 하는 죽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책망할 일이 있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18-20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양심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21-22절).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기에(2:27)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 속에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10절).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주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28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마가복음 16:5-7)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태복음 28장 2-7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던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a)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주일) 새벽에(눅 24:1)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하고 서로 말하였는데 그 무덤에 가보니 벌써 심히 큰 돌이 굴러져 있었습시다(막 16:1-4). 그래서 그녀들은 무덤에 들어갔는데(5절) 주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시다(눅 24:3-4)[마가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막 16:5)라고 기록하였고, 마태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마 28:2-3)하고 기록하였음]. 그 때 “지키던 자들”은 그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마 28:4)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자 그 두 사람들(천사들)이(눅 24:5)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막 16:6-7).

(i)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았을 때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눅 24:3).

-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무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무덤도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무덤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아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나팔이 울릴 것이요, 십시간에 우리 몸은 변화되어 새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때는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의 무덤에는 이런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인터넛).

(ii) 여기서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마가와 마태는 한 사람(천사)만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와 요한(요 20:12)은 두 천사가 나타났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누가와 요한이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언급한 이유는 합법적인 증인 위해서 필요한 수가 두 명이기 때문인 것 같고, 마가와 마태가 한 사람(천사)만 나타났다고 언급한 이유는 아마도 대변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호크마).

(iii)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키던 자들”이 그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마 28:4)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다(눅 24:5)는 것입니다.

-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마27:64-66)은 지진과 더불어 일

어난 천사의 임재 앞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 앞에 선 죄인들의 실존적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사 6:4-5).

-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누가는 기록하였는데 이 기록은 누가만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는 '놀라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묘사함으로 초자연적 사건에 대한 종말적 두려움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사건에 대한 경이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언급하는 '두려워', '놀라지 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역시 두려움에 대한 강조를 약화시키는 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부각시키려는 누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호크마).

(iv)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 “놀라지 말라”(막 16:6),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마 28:5): 천사는 먼저 여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너희는”이라는 대명사가 강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사색이 되어있는 무덤지기들은 배제된 채 여인들 에게만 무서워 말라는 말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두려움에 방치되어 버려질 사람이 있고 두려워 말라고 하는 선택적 위안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호크마).
-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막 16:6),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 28:5-6),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눅 24:5-7):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
 - 천사는 그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막 16:6; 마 28:5). 여기서 강조된 점은 ‘십자가에 못 박

히신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강조는 분명한 죽음이 분명한 부활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호크마).

-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 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무덤에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 계셨을 때 말씀하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하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결국 죽일 방법을 의논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원하는 데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마가복음11:18,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누가복음19:4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2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1)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막 11:18,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눅 19:47)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죽일 방법을 의논하였”습니다(마 26:4; 막 3:6; 11:18; 14:1; 눅 22:2,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협의하고 계락을 짜되 비밀리에 죄인 아닌 죄인을 극형에 처하기 위해 몹시도 당황했었던 것입니다(Robertson, 호크마). “그러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눅 19:48, 현대인의 성경).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24:20, 새번역).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막 10:33, 현대인의 성경).

(2) 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리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막 11:18, 현대인의 성경). 왜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치셨”고(마 7:29, 현대인의 성경) 또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으므로(눅 4:31,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

기 때문입니다(눅 4:15, 현대인의 성경). 결국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신 권위 있는 예수님을 “시기하여” 이방인인 로마 총독 발리도에게 넘겨졌고(막 15:10, 현대인의 성경),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고소한 죄, 죽일 만한 죄)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눅 23:4, 14, 22, 현대인의 성경) 끈질긴 군중들의 요구에 저서 예수님을 넘겨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기에(23-25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죽일 방법을 의논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 (3) 이사야 53장 10절 상반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상함 받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5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독생자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길 원하셨습니까(6절).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독생자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시길 원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희생재물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까(10절).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는 것(12절)을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기에 만족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박혀 죽으시는 것을 만족히 여기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셨고 만족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의 기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기간을 줄어 주셨습니다
(참고: 막 13:20, 현대인의 성경).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입니다
(막 13:24-27, 현대인의 성경).

고난의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 13:19-23, 현대인의 성경).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큰 기적과 놀라운 일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들의 속임수를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예언자들을 통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난의 쓴 잔도 하나님이 뜻대로!

갯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와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빌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마가복음14:32-36, 현대인의 성경)란 말씀 중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1)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 마가는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빌며 기도하셨다(막14:35,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지면 달을 정도의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눅 22:41,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크마에 의하면 그 거리는 30-50m 사이의 짧은 거리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깊은 밤중에 극한 심적 갈등을 겪으시며 간구하시는(히 5:7) 예수님의 기도 소리는 제자들의 귀에 또렷이 들렸을 것이며 그 애타는 심정은 그들 제자들의 마음에 넉넉히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호크마).
- (2)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마가는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막 14:35, 현대인의 성경)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마 26:39). 그리고 누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눅 22:41). 호크마에 의하면 유대인의 기도 자세에는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막 11:25), 무릎 꿇어서 하는 기도(행 7:60; 엡 3:15)등이 있다고 합니다. 실로 주님께서 머리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비운 절대 겸손의 표시로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복종의 표현이라고 합니다(호크마).
- (3)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막 14:36, 현대인의 성경)하고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 내용을 3가지로 나눠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a) 첫째로,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개역개정)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란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란 아랍어적인 표현은 예수님의 호소가 뜨거운 호소의 뜨거운 정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 최후의 순간을 눈 앞에 둔 예수님이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대상은 당신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으며 또한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게 하실 성부 하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호크마).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 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창세기 18장 13-14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는가?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7절 새번역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 주셔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8:15; 갈 4:6, 새번역).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요 16:23-24, 현대인의 성경).

(b) 둘째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막 14:36, 현대인의 성경)란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35절, 현대인의 성경)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는데 여기서 “고난의 때”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는 하

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말합니다(호크마).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하셨는데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동사는 유월절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나가다'는 말은 죽음의 재앙을 피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소망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호크마). 그리고 “고난의 잔”이란 역시 똑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잔”이란 육신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육체적일 뿐 아니라 고통과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호크마).

(i)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때 우리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간구의 핵심을 죽지 않고 살려달라는 호소입니다.

(c) 마지막 셋째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막 14:36, 현대인의 성경)란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은 예수님의 인성에 의한 불안과 고뇌에 찬 갈등의 시간이 다하고 신성에 의한 전적인 순복이 이뤄낸 궁극적 결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그 잔을 마시기로 결연히 다짐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이 '잔'을 마실터인데 충분히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사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눅 22:43) (호크마).

(i)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의 잔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시고 이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서 지나가는 것이지만, 만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막 14:36, 현대인의 성경).

- 성찬식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포도주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고전 10:16,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의 잔을 십자가에서 받으셨기에 우리가 그 축복의 잔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눅 22:42,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로 주신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빌 1:29, 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매우 완곡한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열 두 제자와 함께 그 집으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마가복음 14:14, 17-18, 현대인의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요한복음 13:21,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이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고 서로 물었습니다(누가복음 22:23,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몰라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요한복음 13:22, 현대인의 성경). 제자들이 매우 슬퍼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마태복음 26:22-24, 현대인의 성경). 그때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롯 유다가 “선생님, 저입니까?”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25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1)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요 13:18,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열 두 제자들 중 누가 자신을 배반하여 팔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11, 18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가롯 유다가 은밀한 중에 자신을 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조차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호크마).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발까지도 씻어 주셨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을 뿐만 아니라(4, 12절) 그 사람과도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셨습니다(막 14:18, 현대인의 성경).
- (a)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괴로워하시면서(요 13:21, 현대인의 성경)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막 14:18,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심으로 마지막까지도 가롯 유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완곡한 사랑의 호소였습니다(호크마).
- (i)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과 더불어 식사하고 즐긴 다음 배신하는 가장 큰 변절자였던 가롯 유다를 사랑으로 회개를 호소하셨습니다(호크마).

(2)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이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고 서로 물었습니다(눅 22:23,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몰라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요 13:22, 현대인의 성경). 제자들이 매우 슬퍼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하고 물었습니다(막 14:19, 현대인의 성경).

(a) 그들은 의아해하면서 각자가 한 사람씩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호크마).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하고 물었는데 이를 달리 번역하면 “저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정도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호크마).

(i) “사실 11 제자들은 이러한 본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 적어도 자신들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부지 불식간(不知不識間) 예수를 해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제자들은 '주여'라는 말을 함으로써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즉 신앙의 주(主)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다는 '랍비여'라는 말로 부름으로써(25절) 예수를 단지 '선생님'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호크마).

(3)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마 26:22-24, 현대인의 성경). 그때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롯 유다가 “선생님, 저입니까?”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25절, 현대인의 성경).

(a) 가장 친근한 사람끼리 마음을 터놓고 식사하는 유대인의 풍습에 비춰볼 때 식사 중에 가롯 유다의 배신 예고를 한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시 41:9, 현대인의 성경)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배반하였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다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가 예수님에게 가장 해로운 배신을 한 것이었습니다(호크마).

(i)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여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마 26:24, 현대인의 성경)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가롯 유다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비참하게 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호크마).

- 그러나 배신하여 절망적 운명에 처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 햇빛을 보지 않은 자가 훨씬 좋았겠다는 이 비극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계속 자신의 반역 의지를 실천해 갔습니다(호크마).
 -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 저입니까?”하고 물었는데(마 26:25, 현대인의 성경) 그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양심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지독한 위선입니다(호크마). 그 결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에게 불행히 닥쳤는데 그는 목매어 죽음으로써(27:3-5) 또는 몸이 곤두박질해 배가 터져 죽음으로써(행 1:18, 19) 실현되었습니다(호크마).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궁지에 몰아 놓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호크마).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렸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로마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마가복음 12:12-1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15-17절과 누가복음 20장 19-2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오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그런데 로마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마가복음 12:14,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 (1) 지난 주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지금도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인 목사님을 대적하여 공격함에 있어서 ...”란 제목 아래 쓴 짧은 말씀 묵상 글에 누군가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 왜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해의 글이 없으신 겁니까? 정교분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는 어느 교회 장로님도 교회나 기독교 단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40년 넘은 친구는 지난 주에 그의 Facebook에 “제가 요번이 윤석열 사태로 태극기 부대가 탄핵반대 시위를 하면서 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몇가지들”이란 제목 아래 4개로 나눠서 글을 쓴 것을 읽게 되었는데 4번째 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4. 목사들: 사람들을 집회에서 선동을 하는 목사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헌금까지 챙기는 모습들이 너무도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목사들이면 사람들을 평화와 용서를 펼쳐야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혐오를 심어주는 그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목사들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들의 글과 생각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목사로서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지금 제가 사랑하는 아내는 미국에 4살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 온 사람으로서 한국어도 할 줄을 몰랐기에 한국 정치는 전혀 모르고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을 그녀 나름대로 사랑하기에 미국 정치에 대해 절제를 하면서 저에게 마음을 쏟아내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

령이 되었을 때 너무나 많이 힘들어해서 결국 저랑 같이 공화당이었지만 그녀는 민주당으로 바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TV를 켜서 미국 뉴스를 볼 때에 제 아내가 지나가다가 TV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아내는 저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곤 해서 결국 저는 그 때 TV를 끊었을 정도였습니다. ≡ 제가 요정도만 저희 부부의 미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게요. 저희 집 세 자녀들까지는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미국 정치에 대한 견해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미국 대통령 등 선거 때 투표용지가 집으로 오면 제 견해를 그들에게 나눠서 그들이 저에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 아버지인 제가 원하는대로 투표하는 것보다 자기들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대로 결정해서 투표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견해를 공적으로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교회 웹사이트나 카카오톡 방에나 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개의 웹사이트나 등등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 (a)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속해있는 어느 목사님들의 카카오톡 방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정치적 견해로 말미암아 신학교 동문 우정 관계가 매우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제가 제 대학교 동문 친구들(대학 후배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그 때 두 형제들이 미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암전하게(?) 흥분도 하지 않고(감정도 섞이지 않게?) 서로의 다른점들을 말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들을 칭찬했었습니다. 한 친구는 아마 공화당인 것 같고 다른 친구는 아마 민주당인 것 같아보였는데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견해를 점잖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감사했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 (2)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4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그런데 로마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하고 물어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찬하고 추켜 세우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와 권위를 갖춘 가르치는 자로 인정하면서(호크마) 로마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인지 바쳐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궁지에 몰아 놓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호크마).
- (a) “예수 당시 유대 지방의 납세 문제는 민감한 문제였다. 갈릴리 지방의 분봉 왕 헤롯은 중

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었으므로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종교적인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유대 지방은 아켈라오가 폐위되고 황제의 직속령으로 재편성되어 황제가 임명하는 총독이 다스리게 되자 유대 백성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직접 세금을 바치는 격이 되었다. 한편 이때 가이사는 A.D. 12-37년에 로마를 통치한 티베리우스 황제였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매 14년마다 한 번씩 그 각 지방에서 바쳐야 하는 세금의 총량을 결정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눅 2:1). 이스라엘에서는 바벨론 유수때부터 이방 지배자들에게 조공(朝貢)을 바치는 일이 문제된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인구 조사를 즈음하여 갈릴리 사람 유다(행 5:37)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방 왕들에게 세금을 바쳐 그를 인정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반란은 진압되었어도 가이사에 대한 납세의 적법성(適法性) 문제는 계속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민이 예루살렘성전이 있는 유대 땅의 소출(所出)에서 십일조를 성전에 바치면서 그 동일한 소출에서 떼어 이방인 왕의 통치아래 있다는 표로 세를 바치는 것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꺼림직하게 여겼다(F. F. Bruce). 과격분자들인 열심당은 그 일을 수치(羞恥)로 여겼다. 그러나 헤롯당은 헤롯 가문을 재흥시켜 헤롯 대왕의 호시절로 돌이키려고 로마 제국에 협력하면서 납세도 적극 권장하던 자들이었다. 어쨌든 지금 예수는 궁지에 빠졌다. 납세를 찬성하면 열심당과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여 그들이 환영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납세를 반대하면 헤롯당원과 사두개인들, 로마 총독과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예수가 로마에 대한 납세를 찬성하지 않으실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사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려는 그들에게도 그 문제는 큰 고민이었다. 여하튼 바리새인들의 사악함은 하나님의 도에 참된 예수의 견해 중에서 율법에 열심인 자신들과 일치되리라고 예상한 점을 이용한 데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예수를 옳아매기에 충분한 문제였기 때문이다”(호크마).

- (b) “여기서 특별히 가이사(Caesar)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무력적으로 지배하면서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 깊은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 같은 민족 감정에 대한 예수의 입장을 말하게 함으로써 예수를 로마 쪽이나 유대 쪽으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진퇴 양난식(進退兩難式)의 교묘한 질문이다. 민족 감정으로 첨예하게 드러나 있는 지배국에 대한 세금 납부 문제는 초기 단계에 이미 유대인의 저항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I. H. Marshall). 예수 당시에 유대인의 반(反) 로마적 감정은 세금 징수 문제에 있어 큰 반발심으로 표출되었다. 그래서 정탐꾼은 자신들이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당

연하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반대로 친로
마적 발언을 한다면 예수를 환호했던 대다수 우리들로부터 배척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
던 것이다”(호크마).

(3)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저희 부부만의 추억들이 두개가 있습니다. ㅎㅎ 잊을 수가 없는, 아
니 잊혀지지 않은 추억들이지요. 그 추억들이란 첫째로 저희 부부가 약 6시간을 운전해서
San Francisco를 가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사랑하는 아내가 미국의 낙태 문제와 그 낙태
를 반대하는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인 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의분을 가지고 저에게 쏟아내는데 제가 약 6시간 동안 들으면서 힘들어 했던 기억입니
다. ㅎㅎ (물론 이것은 아내의 견해에 대한 제 생각이지만 정확하게 아내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입장이 아닙니다). 둘째로, 저희 부부가 제 장모님을 방문하고자 약 9-10시간 운전하면서 가
고 있었을 때 (그 때가 밤이었음)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미국 정치에 대해서 또 다시 자기
의 견해를 말하는데 [한쪽으로는 제가 운전하면서 졸릴까봐 아내가 계속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른 한쪽으로는 제 아내는 제가 볼 때 변호사 기질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자기 나
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관점을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인 저에게만 쏟아냈을텐데] 제
가 몇 시간을 듣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에게 ‘Please stop’(제발 얘기하는 것을 멎
춰달라고 부탁한 기억이 납니다. 하하. 제 아내는 저와 성격이 매우 달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
는 사람들을 보면 의분을 가지고 저에게만 쏟아냅니다 ㅎㅎ 제 대학교 후배 자매들 세 명과 6
년 넘도록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그녀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저에게만 쏟아냅니다 ㅎㅎ.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실제로 뉴스에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우울해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아내가 그 시민들 중에 한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저도 … ㅎㅎ).

(a) 제가 저희 부부만의 이 추억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아내를 생각할 때 나누고 싶지 않
지만) 지금 미국을 사랑하는 미국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뿐만 아니라 특히 이민자들이 고국
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와서 고생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으신데 각자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함께 승리장로교회라
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빌 1:27)을 하
시고자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한 운 장로
님은 장로님으로서 우리 당회원들이 어떻게 모범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
야 하는 것일까요?

(i) 골로새서 4장 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
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참고: (3-4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바울이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로도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마음 한 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씀의 3가지 의미 중 첫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27절). 그러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막 8:35,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면서(겸손한 마음)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한 마음을 품고(빌 4:2) 한 뜻인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서로 돕고 힘을 합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겿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눅 22:42,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이며 어두움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이다”(눅 22:53,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마가복음 14:43, 현대인의 성경)에게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칠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48-49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1)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강도” 취급을 하였는데 여기서 “강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조직적이고 폭압적인 강탈자라는 뜻 외에 극단의 민족주의자들의 추앙을 받는 혁명가들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Josephus).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겨우 몇몇의 동지를 규합해서 로마나 유대 당국을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은밀한 곳에서 모의를 하는 흥기를 든 “강도”와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늘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으며, 그 가르침의 내용도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물론 그분은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들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정화(정화)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락한 무법자요 강도의 행동과 같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흉악한 두 강도 사이에 달리심으로(마 27:38) 로마와 유대 당국으로부터 끝까지 강도 취급을 당하고 마셨습니다(호크마).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끝까지 강도 취급을 당하시되 진짜 강도인 바라바(요 18:40, 현대인의 성경)보다 더 악한 강도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강도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외쳤고(40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외쳤습니다(눅 23:21, 현대인의 성경).

- (a) 그러나 실제로 “강도”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막 14:43, 현대인의 성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6장 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강도 떼처럼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며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지 모르겠지만[(눅 6:46)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돈을 좋아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참고: 눅 16:14).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

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기에 그들은 주님의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19:46, 현대인의 성경).

(2)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마 26:55; 막 14:49; 눅 22:53, 현대인의 성경).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공식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낮에 예수를 체포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체포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며 아울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좇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체포한 뒤의 군중들의 반응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적당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 때 가롯 유다의 배반과 유대 지도자들의 기회 선택이 안성맞춤으로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낸 무리는 예수님을 마치 죄인(“강도”)처럼 한적한 밤에 인적인 드문 곳에서 체포한 것입니다(호크마).

(3)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막 14:49, 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마 26:56), 누가복음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이며 어두움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이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눅 22:53, 현대인의 성경)

(a) 여기서 “성경 말씀”이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마태는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제는 너희 때이며 어두움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이다”하고 기록하였습니다.

(i) 여기서 “어두움의 권세”를 묵상할 때 골로새서 1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18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늘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어두움의 권세”란 “사탄의 세력”을 말씀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권세/세력의 지배아래에 있었으면 그것을 “어두움 속에 있고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하고 요한일서 2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 에베소서 5장 8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하여 어두움 속에 살지 않고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 되어(살전 5:5, 현대인의 성경) 어두움을 밝혀 주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벧후 1:19, 현대인의 성경)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며(엡 5:11,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며 살아갑니다(벧전 2:9,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마가복음 10:17-18, 현대인의 성경; 참고: 마태복음 19:16-17; 누가복음 10:25).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 (1) 저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3)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롬 8:28). 여기서 “모든 것”이란 좋은 것이나 좋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데 그 예로 좋은 것이란 “영광”이요 좋지 않은 것은 “고난”입니다(17절). 즉, “모든 것”에는 “영광”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고 고난은 “현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28절)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환난아니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35절)로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는(36절)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여기서 “선”이란 최고/최상의 선으로서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옥한흠). 그 구원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영화”입니다(28절). 그 “영화”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입니다(엡 2: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롬 8:28)을 이미 “영화롭게 하”시사(30절) 우리를 “하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고(엡 2:6, 현대인의 성경)[“이미”(Already) 관점] 또한 “장차”(롬 8:18) 우리

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아직도”(Not-yet) 관점](김창세).

- (4)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시편 34편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약 28년 전에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께 결혼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때 저는 약 6개월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6개월이 지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마치 video처럼 제 머리에 여러 기억들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 (<https://blog.naver.com/kdicaprio74/223555506411>)].
- (5) 저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시 23:6).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86:5).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선하십니다(롬 12:2). 하나님께서는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8:28).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시므로(느 2:8, 18)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합니다(시 34:8).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23:6).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8, 16).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19절; 롬 8:29; 엡 1:4).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엡 1:4)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요 3:16)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갈 4:4)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롬 5:8).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시 23:6).
- (6) 그러므로 저는 “좋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는(시 34:8)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일)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하나님”(God is so good)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지라도 소망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좋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돌이키시사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

합니다. <https://youtu.be/melcbyaE-Ns?si=vZ3UyyTRhdgc1vkY>

(7) 그리고 저는 언제나 선을 추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선을 추구하십시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롬 12:21). 바울은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살전 5:15). 저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의 삶 속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악을 행해서는 아니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엡 2:10).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벧전 3:9). 또한 바울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살전 5:15). 요셉은 그의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나아가심을 깨달았기에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한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창 50:20-21).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에(시 34:8) 자기를 해하려고 한 형들에게도 선을 베풀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눅 12:24)

예수님께서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2:24).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습니다(레 11:15; 신 14:14)(호크마). 왜 예수님께서서는 부정한 새인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민 21:8)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뿔들에게 물려 죽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고 명하셨는데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3장 14-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요한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불뿔”이 들린바 된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불뿔이 장대 위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달렸습니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신 21:23하);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갈 3:13하,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며(신성모독죄) 성전을 모독한 죄로(성전모독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들린바 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는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갯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와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셨다(마가복음 14:32-34,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만 묵상할 때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가는 예수님께서서 갯세마네라는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막 14:32, 현대인의 성경)고 말하였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셨다(눅 22:39, 현대인의 성경)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감람산의 작은 동산인 갯세마네에 습관대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던 갯세마네에 자주 가셔서(요 18:1-2)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a)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이라는 열매를 얻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성품이 되고, 결국 성품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낸다”(인터넷).

(i) 저는 이 글을 묵상할 때 성경적인 바른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으로 말한다면, 히브리서 3장 1절 하반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하),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빌 4:8, 새번역).

(ii) 이렇게 성경적인 바른 생각의 씨앗을 부지런히 부릴 때 우리는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행동이라는 열매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요(요일 3:18, 현대인의 성경),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요(골 4:5, 현대인의 성경),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이요(벧전 1:15, 현대인의 성경), 주 예수님

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이요(골 3:17, 현대인의 성경), 단정하게 행동하는 것이요(롬 13:13, 현대인의 성경), 분수에 맞는 행동이요(민 16:3, 6, 현대인의 성경),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입니다(눅 3:8, 현대인의 성경).

- (iii)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데 그 습관들이란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습관과 지혜롭게 행하는 습관과 거룩하게 행하는 습관과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습관과 단정하게 행동하는 습관과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습관과 바르게 행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히 10:25, 현대인의 성경).
 - (iv) 이러한 습관이 모여 성품이 되어 하는데 그 성품이란 타락한 성품(롬 8:3, 현대인의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벧후 1:4, 새번역). 이러한 성품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 (b)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자주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3 가지입니다. 그 3가지는 바로 조용한 시간(Quiet time)에 조용한 장소(Quiet place)로 가서 조용한 마음(Quiet heart)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 (i) 예수님께서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헨리 나우웬이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외로움과 고독의 다른 점은 외로움은 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도 아닌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의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군중 속에서의 외로움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군중 속에서의 외로움을 우리는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지 못하는 무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대신 가까운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

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고독을 즐기지 못하면서 외로움은 너무나도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외로움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마음(quiet heart)으로 홀로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므로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 홀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중추(backbone)였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습관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2) 예수님은 몹시 괴로와하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셨다(막 14:34,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2가지로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a) 첫째로,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와하시며”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33절)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는 “고민하고 슬퍼하사”(마 26:37)하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고민하고”란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뜻하는 말이며(빌 2:26), “슬퍼하사”란 마음에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호크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다”(마 26:38; 막 14:34,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으면 “죽을 지경이다”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i) 호크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앞에 닥친 고난과 죽음의 무게 앞에서 예수는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다.” “실로 예수께서 지금과 같이 곤경에 처한 적은 없었다. 바야흐로 예수의 수난의 고통이 실제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때 예수께 있어서 죽음의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지만 그것보다도 한층 심한 고통이 되는 것은 인류의 죄를 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고후 5:21) 하나님으로부터 저주(詛呪)를 받은 바 되는 것이었다(갈 3:13). 정녕 이 고통이야 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27:46)라는 십자가 상의 절규에서 그 고통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호크마).

(b) 둘째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막 14:34, 현대인의 성경)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마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마 26:38, 현대인의 성경)하고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마가와 달리 “나와 함께”라는 말씀을 추가로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달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눅 22:40, 현대인의 성경)는 예수님의 말씀을 추가로 기록하였습니다. 호크마의 말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곧 닥칠 체포와 고난을 뜻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체포되신 후, 이로 인해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이미 아셨고 따라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시키신다. 아울러 예수 자신도 심각한 고난과 시험을 직면하여 함께 기도하신다”(호크마). 이 세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에 임마누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살전 5:6, 현대인의 성경),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시 57:8, 현대인의 성경),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골 4:2, 새번역),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마 24:42, 현대인의 성경),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눅 21:36, 새번역).

“나”라는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케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마가복음16:2-4)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a)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안식 후 첫날(막 16:2)인 일요일(주일) 새벽에(마 28:1)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막 16:1)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눅 24:1)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막아 둔 돌을 굴러 줄까?”하며 서로 걱정하였습니다(막16:2-3,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가서 그 무덤을 보니 무덤을 막았던(요 20:1, 현대인의 성경) 그 큰 돌이 이미 굴러져[옮겨져(요 20:1, 현대인의 성경); 눅 24:2 참고] 있었습니다(막 16:4, 현대인의 성경). 그 큰 돌은 큰 지진이 나며 주님의(마 28:2) 두 천사가(눅 24:4; 요 20:12) 하늘로부터 내려와 굴러낸 것입니다(마 28:2).

(i)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입구에 막아 둔 돌을 누가 굴러 줄까?”하며 서로 걱정하였던 것(막 16:2-3, 현대인의 성경)은 타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들은 이러한 걱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흥미로운 것은 주로 우리의 본능은 걱정이 되는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 해결한 다음에 그 무덤으로 가려고 할 텐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는 걱정을 안고서라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그녀들의 목적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준비해 두었던 향품(눅 24:1)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막 16:1). 그 당시 향유를 바르는 것은 곧 시신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시신이 썩기 전까지는 고인의 혼이 시신 곁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 지낸 후 사흘동안 시신을 돌보았던 것입니다(호크마).

(ii) 그 여자들이 걱정을 앓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마 28:1-2).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27:51; 출 19:18; 시 68:8; 행 16:26; 히 12:26). 따라서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의 이면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역사하셨음을 의미합니다(엡 2:5,6)(호크마).

- 우리의 삶 속에는 마치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 줄까 하는 큰 걱정이 있을 때가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그 “누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과정은 그 큰 걱정보다 더 큰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나”라는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귀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 밑바닥까지 보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하고 심지어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그 때서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하시고 의지케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에 대하여 침묵하기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마가복음 14:60-61)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현대인의 성경) “이들이 네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데도 …”](막 14:60)하는 대제사장의 말을 묵상할 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던 사람으로서(56, 57절, 현대인의 성경) 마태가 말한 그 많은 거짓 증언한 사람들 중에 마지막으로 와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하고 증언한 두 사람(마 26:60-61, 현대인의 성경)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a) 그 두 거짓 증인들은 추측컨대 산헤드린 공회에 매수된 자들이었거나 아니면 윗사람의 비유를 맞출 목적으로 증인의 자리에 선 것으로 보이는 자들로서(호크마) 그 윗사람인 대제사장들과 온 산헤드린 공회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사형)이었습니다(막 14:55).

(i)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이유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바빙”이기 때문입니다(마 15:16, 18-19,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길 원하고 계십니다(막 10:19,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에 나와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 중에 “거짓 증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고전 15:13-15, 현대인의 성경).

-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입니다.

(ii)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진리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잠 25:18)입니다.

(2)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대답도 없느냐”(막 14:60)하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네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61절, 현대인의 성경).

(a)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현대인의 성경)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괴로울 때에 침묵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요(30:15),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말씀은 침묵으로 이끌고 침묵은 말씀으로 이끈다”(헨리 나우웬, "기도의 삶")].

(i) 침묵은 비록 아무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헨리 나우웬). 그리고 침묵이란 많은 사람들의 거짓 증언과 비난과 수군수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는 말들을 듣는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참고: 고후 1:9, 현대인의 성경)의 음성만 듣고 그 말씀에 묵묵히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막 14:62)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현대인의 성경)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다시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마가복음14:61-62)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가야바 대제사장의 사악한 질문인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막 14:61-62)하고 답변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하였는데(마태도 비슷함: 마 26:64) 누가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눅 22:67-69)하고 말씀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하고 질문했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70절)하고 기록하였습니다.

(a) 마가복음의 기록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막 14:62)하고 말씀하셨는데 원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ἐγώ εἶμι)는 “나는 …이다(I am ~)”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참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마 26:63-64)].

(i) 이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합니다: (1)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6:35, 48, 51), (2)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3) 나는 양문이다(10:7, 9), (4) 나는 선한 목자다(10:10, 14), (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 (6)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7) 나는 참 포도나무다(15:1).

- 이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도 5번 등장합니다: (1)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

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1:8), (2)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1:17), (3)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21:6), (4)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22:13), (5)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22:16)(인터넷).

- 이 5번 등장에 4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즉,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b)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막 14:62)하고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이란 표현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행위와 통치권을 전해받으실 것을 내포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는 결국 성부 하나님과의 동격을 이루실 예수의 신적 선언인 것입니다(호크마).

(i)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다니엘 7장 13, 14절에서 유래한 표현으로서 위엄과 영광으로 임하실 예수님의 최고의 자기 계시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호크마).

(c)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최고의 자기 계시를 하셨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며”(눅 22:67, 현대인의 성경).

(i)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필요성이 없음을 예수님은 질문자의 불신앙을 들어 단정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재판이 공정한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음모에 따라 꾸며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

이는 따위의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것은 믿음에 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죽이기로 결심하여 음모를 꾸민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명의 말도 소용없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호크마).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하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마가복음 14:27-3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다(30절, 현대인의 성경; 참고: 마태복음26:34; 누가복음22:34; 요한복음13:38,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누가복음 22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야”라는 말씀이 기록돼 있지 않음). 이 “베드로”란 이름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준 이름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야”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 이름이 “반석”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변할 수 없는 굳고 단단한 의지로 믿음을 지켜야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호크마).

(a)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시사(알려주시사) 그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하고 신앙 고백케하신 그 말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종합해서

한 마디로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주님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막 14:30,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수님께서서 공생애 때 그분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요 6:47,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요한복음 20장 30-3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b)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요 6:26,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남자들만 약 5,000명쯤 되는(10절, 현대인의 성경) 큰 무리가(5절) 자기를 찾아온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큰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보리떡(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27절, 현대인의 성경).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28-29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33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떡”(33절)이시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41, 51, 58절)이시요 “생명의 떡”(35, 48절)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47절)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47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27절, 현대인의 성경)인 “하나님의 양식”(33절, 현대인의 성경)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27절, 현대인의 성경).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 생명을 버려야 합니다(막 8:35, 현대인의 성경).

(c)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마 18:13,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하고 물은 제자들에게(1절, 현대인의 성경)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2절)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3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후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11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12-14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들을 듣고 변화되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 하며(3-4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므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며(5절),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죄 짓게 하지 말아야 하며(6절, 현대인의 성경), 길 잃은 양과 같은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찾아 그 한 어린 아이 때문에 더 기뻐해야 합니다(12-14절, 현대인의 성경).

(d)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마 25:40,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 중 한 구절로서 재림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서 심판하실 때에(백보좌 심판) 양과 염소를 분리하실 것인데 여기서 양이란 영생을 얻을 성도들을 말하고, 염소는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을 말하는데 위에 말씀은 영생을 얻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선한 일[예를 들어,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나그네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 병든 자를 간호해 주는 것, 갇혀있는 자를 찾아 주는 것(35-36절, 현대인의 성경)]이 바로 주님에게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저를 택하셨고(고전 1:28, 현대인의 성경) 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만해도 감사한대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참고: 엠 3:8, 현대인의 성경; 행 1:8). 그리고 저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참고: 엠 2:10, 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 10장 4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

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e) “그 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요 16:23-24,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받을 것이며 우리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하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기도 제목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계 22:20).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보시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며 아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입니다(요 16:22, 현대인의 성경).

(3)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는데(막 14:30,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하고 신앙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투쟁”(The Christian Warfare)에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마귀가 무엇보다도 관심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인 정신을 집중적으로 교활하고 무서운 권세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귀는 여러가지 귀계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포의 영으로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사도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이유는 마귀가 지극한 공포의 영이 그에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마가복음9:41,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1)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할 때 이 말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 (요 6:47, 현대인의 성경)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b) (요 6:32, 현대인의 성경)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하늘의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c) (막 11:23, 현대인의 성경)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며 마음 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d) (마 18:13, 현대인의 성경)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e) (눅 13:24,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써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알고”(막 9:41,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할 때 갈라디아서 3장 2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

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롬 8:9).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갈 3:2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입니다(롬 8:17,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17-18절, 현대인의 성경).

- (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막 9:41,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할 때 마태복음 25장 34-4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려가는 요나와 내려가시는 예수님

내려가는 요나: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였습니다(욘 1:2) 그러나 요나는 오히려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가고’(3절), 더 나아가서 배 밑층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5절), “깊은 속 바다”(2:3)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6절). 이렇게 교만한 불순종의 길은 내리막 길입니다.

내려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일어나 저 최악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사랑하신) 자들 그리고 미리 작정(예정, 선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속 죽으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내려가셨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내려가셨고, 하류계층만 처형당한 십자가까지 내려가셨고, 땅 깊은 속까지 내려가셨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he descended to hell”(영어 사도신경)].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 9:50).

예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소금의 우정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마가복음 9:50, 현대인의 성경)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소금”이란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여기서 “소금”에 대한 호크마 주석을 참고하였습니다: “고대의 종교 세계에서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었고(출 30:35; 레 2:13),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하는 언약에 연관되었다(민 18:19).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로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 소금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셨다. 예를 들면 제자들은 희생의 의미를 담고서 소금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막 9:49)”(호크마).

(2) 예수님께서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9:50).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마 5:13,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선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즉,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선하심)을 맛보면서(경험하면서)(시 34:8) “선한 양심”을 가지고(벧전 3:1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좋으신(선하신) 뜻(롬 12:2)대로 살어드리되 “선한 말”(시 39:2; 눅 6:45, 현대인의 성경)[우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여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야”함(골 4:6; 엡 4:29)(호크마)]과 “선한 행위”(잠 14:14, 현대인의 성경), “선한 행실”(딤후 2:10, 5:25, 현대인의 성경) 또는 “선한 일”(마 12:12; 요 5:29; 롬 2:10, 7:19, 12:17, 13:3; 갈 6:9; 살후 2:17; 딤후 5:10; 딤후 1:14; 히 10:24; 벧전 3:11, 13, 17; 요삼 1:11, 현대인의 성경)을 하는 “선한 생활”(약 3:13; 벧전 2:12, 현대인의 성경)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딤후 4:7, 현대인의 성경).

(3) 예수님께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막 9:50, 현대인의 성경)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다”란 제목 아래 쓴 말씀 묵상 글을 다시금 읽게 되었습니다. 몇 부분의 글만 나눕니다: “... 바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소금처럼 매우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맛나게 하고 또한 인생 사회를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는 듯하지만 삶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부정부패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 마치 맛 잃은 소금이 아무 쓸 데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아무 쓸 데 없는 사람들로 전락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짠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코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복음으로 이 세상에 맛을 내며 이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4)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막 9:50)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짠 맛을 내는 좋은 소금을 우리 속에 항상 두는 것이 급선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고후 11:3).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마치 소금이 녹아서 음식 전체가 같은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아가 날마다 녹아져서(죽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희생정신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5:18).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19절)을 우리의 입술로 전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마 5:9)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롬 12:18).

“너희가 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하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마가복음 14:27-3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27절, 현대인의 성경)하는 말씀 중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27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만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가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기록하였지만 마태는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마 26:31, 현대인의 성경)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오늘 밤”이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하는 방입니다(34절, 현대인의 성경).

(a) 누가복음 22장 61-6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막 14:27,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버리리라’로 번역된 동사는 어떤 사람(예수님)을 외면하고 죄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호크마). 그리고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의해 직역하면 “너희가 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가 됩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다’는 헬라어 단어는 “실족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호크마).

(a)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일어날 사건과 관련하여 그들이 함정에 빠져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니다(Lenski). 실로 그들 11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실족할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가롯 유다의 적극적 배신 행위에 대비되는 11제자들의 소극적 배신 행위를 지적한 것입니다(56절)(호크마).

(i) 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실족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고: (벧후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참고: (시 37:21)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막 14:27하,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성경”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치신바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a) 가롯 유다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것을 예시한 이 부분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의거하건대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는 궁극적인 동인은 '내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소망적인 사실은, 스가랴 13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 참 목자가 해를 받음으로 대부분의 양떼가 사라져 버리나(8, 9절) 양떼의 3분의 1은 남아서 연단을 받은 후에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희망찬 메세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고(48절), 버리고(56절), 부인함으로써(69-75절)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된 자들은 연단을 통과한 후 분연히 일어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행 2:14-36; 4:10 ; 18:5, 28) (호크마).

‘너희는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 행실을 고치며 하나님과 재물(돈)을 경하여 섬기지 말아라.’

“그때 열 두 제자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마가복음 14:10-11,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은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먼저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제안”했다고 마가복음 14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4-15절 현대인의 성경은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하고 묻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겨준다’는 말은 가롯 유다가 예수를 체포할 만한 적기를 마련하고 또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파송된 무리에게 예수가 손쉽게 체포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16, 47-59절)(호크마).

(a) 가롯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돈궤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습니다. 즉, 그는 욕심이 많은 자였고 돈을 탐하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본성이요 죄성을 분명히 노출시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정식으로 팔려고 그 값을 대제사장들과 흥정하였습니다(호크마).

(i) 그러면 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려고 했던 것일까요? 호크마는 세 가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진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1) 첫째로는 가롯 유다만이 열 두 제자들 중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회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2) 둘째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 왕국을 세우지 않는데 실망했고 또 물질적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셋째로 돈에 대한 사랑이 가롯 유다를 옴아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호크마).

-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들 중에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 두 가지 이유를 하나로 묶어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려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가롯 유다도 잘못된 메시아적 기대(messianic expectation)를 가지고 메시아(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 해방(political freedom)을 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를 벗어나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국을 세우지 않았기에(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임) 가롯 유다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충분히 실망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가롯 유다는 돈을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다(요 12:6,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해방(political freedom)이나 사회적 공의(social justice)나 심지어 경제적 풍부함(economic prosperity)[이 세 가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 기대(messianic expectation)였음]보다 자기 개인적인 돈에 대한 사랑으로 물질적 이득을 얻고자 했기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화 30개를 받고(마 26:15,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을 팔아 그들에게 넘겨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b) 저는 이 정도로 돈 사랑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좇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새번역). 돈을 사랑했던 가롯 유다는 은화 30개를 좇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헤매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 것을 보고 뉘우쳐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으니 정말 큰 죄를 지었소' 하고 말한 후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였습니다(마 27:3-5, 현대인의 성경).

(i)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은 바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받은 돈이 “은화 30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흥미롭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도로 쳐서 죽일지니라”)에 의하면 황소가 남의 노예를 죽였을 때 “은 삼십 세겔”[은화 30개는 은 30세겔에 해당됨(인터넷)]을 배상하도록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노예의 값어치에 불과한 적은 액수로 불의한 자들의 손에 거래된 것입니다. 즉,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가롯 유다 양자간에 예수님을 노예 정도의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멸시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Robertson, 호크마).

- “정녕 예수는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가장 고통 받고 멸시받는 존재로 이 땅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신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비하(自己卑下)를 통해 예수께서는 이 땅에 멸시받고 고난받는 자들과 죄로 인해 절망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것이다(히 4:14-16)”(호크마).

(2)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말씀입니다(막 14:10-11, 현대인의 성경).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가롯 유다의 제안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를 교묘하게 잡아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는데 혹여나 군중들이 난동을 일으킬지도 몰라서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마 26:3-5, 현대인의 성경)고 결정했는데 마침 그 때 가롯 유다가 자기들에게 와서 예수를 팔겠다고 제안하였으니(막 14:10, 현대인의 성경) 이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이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a) 누가복음 22장 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아무 탈 없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하고 있었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군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불리 예수를 처형시켰다가는 많은 백성들로부터 거센 대항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서 온갖 허위 선전을 통해 군중들을 회유하고 선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23:21). 그리고 그들은 한편으로는 유월절이 이르기 전에 예수를 체포하여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유월절이 다가오자 더욱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월절이 되면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때문에 군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예수가 붙잡히게 되면 백성들이 순례자들과 합세해 크나큰 폭동을 일으킬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전에 예수를 조용히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호크마). 그런 와중에 예수의 열 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22:3, 현대인의 성경) 유다가 자기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제안했으니 이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쁨으

로 환영할 일이었겠습니까?

(i) 이것이 바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매우 기뻐하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가롯 유다와 같이 돈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몸은 매 주일마다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16:14, 현대인의 성경)과 같아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마 6:24) 주님의 잔과 식탁을 귀신의 잔과 식탁과 겸하여 참여하고 있는 것(고전 10:21)을 매우 기뻐하고 환영합니다[참고: 주님의 잔과 식탁이란 신자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에(16절) 귀신의 잔과 식탁이란 불신자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19-20절)].

-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들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보내시사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 행실을 고치며 하나님과 재물(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참고: 렘 35:14-15, 현대인의 성경).

-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도 여러 갑절의 상을 받으면서 겸하여 박해도 받습니다(참고: 마 19:29; 막 10:30).

대속의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총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마가복음 15:11-15)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가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막 15:12)고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마 27:22)고 기록하였습니다.

(a) 마가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 총독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십자가형 죄패에 기록한 문구에서 유래된 말로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했다(눅 23:3)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그리스도), 즉 구원자임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인터넷).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가리켜 빌라도 총독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i)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했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르를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르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ii) 또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메시아)는 그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하는 자요(정치적 자유), 사회적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요(사회적 공의) 또한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자(경제적 풍부)였는데(김세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2)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군중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막 15:14, 현대인의 성경; 참고: 마 27:22).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그들에게 다시 “이유가 무엇ियो?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하고 물었는데(막 15:14; 마 27:23, 현대인의 성경) 누가는 이것이 빌라도 총독이 군중들에게 “세 번째 말하였다”고 기록하면서 마가와 마태는 기록하지 않은 빌라도 총독의 말을 추가로 기록하였습니다: “...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음으로 매질이나 해서 놓아 주겠소”(눅 23:22, 현대인의 성경).

(a)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저자 누가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무죄 판결의 기록을 세 번이나 하였습니다(눅 23:4, 14,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큰 소리로 외쳐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23절, 현대인의 성경).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23절, 현대인의 성경).

(i)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군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현대인의 성경)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마가는 기록하였고(막 15:15), 마태는 “빌라도는 아무 효과도 없는 공연한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폭동까지 일어날 것 같아서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소.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오.' 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마 27:24, 현대인의 성경).

- 마태복음 27장24절에서 빌라도 총독이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소.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21장 6-7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살해되었을 때 그 부근에 있는 성의 장로들은 손을 씻는 의식을 통하여 자신들은 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냈어야 했습니다(호크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신 21:6-7).

- 빌라도는 행정적으로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상징 행위를 통해 자기 무죄를 선언하는 대신 모인 우리들에게 그 죄책을 전가(imputation)했습니다(호크마). 어떻게

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을까요?

(ii) 성경은 3가지 전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김창세):

- 첫째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온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범합니다. 갓난아기의 경우는 자기가 지은 죄가 없지만 아담의 범죄가 전가되었기에 그 아이도 죄인입니다.
- 둘째로, 우리 죄인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 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됨)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고후 5:21)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롬 5:19).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

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iii)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하고 외쳤”고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박게 내어주었”습니다(마 27:25-26, 현대인의 성경).

- 누가는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요구한 사람, 곧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하고 기록하였습니다(눅 23:24-25, 현대인의 성경).

-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고 범죄자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대속의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호크마).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유다는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테니 그를 단단히 붙잡아 가시오.' 하고 미리 암호를 짜 둔 후 곧 예수님께 나아와 '선생님'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그러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다"(마가복음 14:44-46,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는 가롯 유다는 미리 암호를 짜 두었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사진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거진 감람나무 사이의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요주의 인물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이기에 따라서 유다는 예수가 있는 곳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들과 신호를 맞추어 손쉽게 체포하도록 했을 것입니다(호크마).

(2) 그 신호가 왜 하필이면 입맞추는 것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이란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삼하 20:9). 정상적인 인사 형태인 입맞춤이 어둠 속에서 체포의 군호로 사용됨으로써 마침내 배신과 위선의 상징으로 굳혀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곳에 몰려온 무리들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때 그의 말을 들었던 무리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 맞춤에 의한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호크마).

(a) 흥미로운 점은 제자와 스승 사이에 있어서 제자가 먼저 스승에게 입맞추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먼저 입맞출 수 없는 이유는 제자와 스승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와의 사제 관계가 최종적으로 부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유다의 이 행동은 일종의 모욕적 행위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호크마).

(i) 한편 본문의 이 장면은 다윗 시대 요압이 아마사에게 입맞추려는 채하면서 칼로 그를 찔러 죽인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삼하 20:9, 10). "바로 이러한 야누스(Janus)적인 성격이 사단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악인의 전형적 속성인데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부르짖지만 속으로는 파멸과 불의와 탐욕을 획책한다(고후 11:13-15)"(호크마)[여기서 "야누스적"이라는 용어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신 "야누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양면성, 이중성, 혹은 상반되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함

니다. 특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모습이나 숨겨진 의도 등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면모를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인터넷)].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마가복음 15:24-25)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여기서 성경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십자가 형은 로마인들의 독특한 형벌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단지 이방 점령 지역의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형벌입니다. 한편 로마법에 의한 십자가 처형은 ...

(a) 먼저 공식적 선고를 받은 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향합니다.

(b) 형장으로 행하는 길에 자기 죄목이 적힌 명패를 가슴에 달아 지나가는 통행인들에게 인격적 모독을 받게 합니다.

(c) 형장에 도착한 죄수의 옷을 벗깁니다.

(d) 독한 술로 육체와 정신을 혼미케 한 후 십자가에 못을 박거나 묶어 그것을 반듯이 세웁니다.

(i)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미 세워둔 십자가위에 죄수를 끌어올려 못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e) 그런 상태로 계속 버려두어 죄수로 하여금 서서히 죽어가게 합니다.

(i) 이때 건강한 남성의 경우 3일 정도 경과해야 숨이 끊깁니다. 이때 각종 야수나 새들이 죄수의 몸을 뜯어먹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f)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그 죄수의 다리를 꺾고 치명적인 외상을 가함으로써 어떠한 소생 가능성도 없애 버립니다.

(i) 물론 이때 외관상 죽은 것이 확인되면 다리는 꺾지 않고 창으로 몸을 찔러 확인 사살만 합니다(호크마).

(2) 여기 마가복음 15 장 24 절 현대인의 성경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져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 장 23-24 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 네 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져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 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는 것이어서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겹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a) 이 말씀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4 명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겹옷은 가져다 네 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져 갔는데(네 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져간 것을 보면 4 명의 군인들임)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 예수님의 속옷은 진귀한 것이었으므로(헨리)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갖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 편 18 편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 겹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현대인의 성경).

(i)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분에게서 옷을 벗기었습니다.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를 의식하게 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때부터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수치도 담당하시므로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흰 세마포로" 입히시기 위하여(계 3:18)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입을 옷이 없으나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벗김을 당하셨습니다(헨리).

(b) “예수님 당시 옷은 그대로 돈이었습니다. 직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일일이 한 올 한 올 짜야 합니다. 그래서 옷은 너무나 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아침 9 시 정도까지 계속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옷은 찢겨지고 피가 낭자하게 묻었습니다. 그래서 옷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로마 병정은 네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수입이 생겼다고 좋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긴 후에 나누어 가지면 술값정도는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겹옷을 벗겨서 네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각각 한 깃씩 가졌다고 한 것을 보면 네 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옷 조각도 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피가 묻었어도 빨면 됩니다. 지금 성경 학자들은 네 조각으로 예수님의 나눈 것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복음이 퍼져 나갈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겹옷을 벗기고 나서 속옷을 벗기려고 할 때 로마 병정들은 놀랐습니다. 속옷은 보통 옷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원문에는 <키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톤이라는 말은 놀라운 단어입니다. 직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지만 모두 한 조각입니다. 한 통으로 짠 옷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23) 이런 옷은 보통 사람이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제사장들만이 특별히 입는 옷입니다. ...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는 요세프스입니다. 요세프스는 이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다고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성경 기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은 너무나 비싼 옷이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 채로 한 사람이 가져야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가졌습니다. 흔히 겹옷이 비쌌습니다. 속옷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겹옷을 잘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속옷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키톤 이 옷을 입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키톤 제사장 옷을 입으셨습니다. ...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텍스라고 합니다. 폰티텍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이 옷을 나눌 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사람들이 있는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입고 죽으셨습니다”(인터넷).

마귀는 성경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서 우리에게 말하던지 질문을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와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세째도 그랬으며 일곱이 모두 그렇게 자식 없이 죽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마가복음 12:18-27, 현대인의 성경; 참고: 마태복음 22:23-28; 누가복음 20:27-33)는 말씀 중 오늘은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마가복음 12:19, 현대인의 성경)라는 말씀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 (1) 먼저 사두개파 사람(사두개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명칭의 기원에 대하여는 (a) 알렉산더 대왕 당시의(B.C. 323) 사독이란 사람에게서 유래하였다 (b) 히브리어로 '체디크', 헬라어로 '아포 디카이오쉬네스', 즉 '의'라는 말에서 근거하였다(Epiphanius)는 견해가 있으나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왕상 1:38)이란 인물에게서 기원하였다(Thayer, Carr)고 한다. 이들 중 후자의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것 같다. 이들은 민족주의자들로서 바리새파, 엷세네파와 함께 유대의 3대 종파의 하나이며 바리새인들과는 적대적인 파당이였다. 또한 그들은 바리새파보다 숫적으로 열세였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특히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은 합리주의자들이었으며 제사장급의 고위층이였다. 그들은 모세 오경 이외에는 모든 전승을 부인하였고, 내세도, 부활도, 천사도,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유전(遺傳)의 위험은 피하였지만, 무익한

세상적인 열심과 인간의 이성에 절대적 기준을 두는 오류(mistake)에 빠져 들어갔다(Alford)”(호크마).

(a) “그들은 헬라 사상을 받아들였으며, 자기 민족의 역사적 근거로서 모세 오경은 인정했으나, 기타의 구전, 문서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유전과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과 적용을 배척했다(Winer). 그들은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믿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것은 땅에서의 생전의 동일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현생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삶이 변함없이 개속되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유대교는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건한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최후의 부활까지는 음부(스올)에서 그림자처럼 미약한 존재의 형태로 있게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사람은 죽음과 더불어 영혼과 육체가 다 없어진다고 믿었다. 그들은 영혼의 존재와 부활의 교리가 오경에서 증명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31 장 16 절과 32 장 39 절을 인용하여 오경에서 몸의 부활을 증명하려 했다. 그리고 오경외에 이사야 26 장 14 절에서도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몸의 부활을 원칙적인 교리로 고수했어도 그들의 논의는 필요없는 상상과 억측으로 흘렀다.

(i) 한 예로 그들은 부활했을 때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할 것인가를 문제 삼았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인가의 논의는 사무엘상 28 장 14 절(죽은 사무엘이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난 사건)에 근거하여 죽을 때 가졌던 모양 그대로, 불구자는 불구인 그대로 부활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든 유대인들은 성지 팔레스틴에서 부활한다고 믿고 외국에서 죽은 자들은 지하의 공로(空路)를 통해서 팔레스틴에 이르러 부활한다고 했다(W. Barclay). 그들에게도 부활은 육체의 부활 그 이상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교리가 만들어내는 많은 모순 때문에 그것을 비웃고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자라고 규정했다”(호크마).

(2) 이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당원들의 실패를 보고(막 12:13-17) 자신들의 입장과 논리로 예수님을 굴복시킴으로 예수님과 함께 경쟁자들을 제압하여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예수와 직접 관계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리새파의 전통적인 부활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교리의 모순된 점을 공격하여 백성의 인기가 최고도에 달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으로 대답할 수 없게 만들어 망신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호크마).

(a) 그들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당원들처럼(14 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19 절)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그들도 존경과 위엄으로 자신들의 악의를 가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당원들처럼 아첨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에 대하여 가졌던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호크마).

(b) 이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19 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했는데 이것은 신명기 25 장 5-6 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일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중 하나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미망인은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여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여자가 낳은 첫아들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현대인의 성경).

(i) 원래 레위기 18 장 16 절과 20 장 21 절에서는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는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5 장 5 절에서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원문: 아들이 없이)죽으면 그 형제가 형수(제수)를 취하여 아내 삼도록 했습니다. 여기 ‘아내에게 장가들어’란 단어는 무자(無子)한 과부인 형수에게 장가드는 자에 대해서 쓰였습니다(창 38:8; 신 25:5). 신약에는 이곳에 한 번 나옵니다. 모세 이전에도 이 수혼(嫂婚)의 풍습은 있었습니다(창 38:8). 그리고 고대에서 근세까지 여러 동양 민족들에게서 그 관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습을 이스라엘의 법으로 정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혼법이 적용되는 무자한 과부를 취할 수 있는 이웃 친척도 같은 지경에 사는 형제에게 국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증인들 앞에서 그 남자의 신을 벗기고, 침 뱉고, 저주했습니다(신 25:7-10). 그러나 이것은 예수 당시에는 거의 퇴화된 법조문이었다고 합니다(호크마).

(3) 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 장 18-19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호크마 주석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들을 좀 적어 내려 갑니다:

(a) 바리새파, 엿세네파와 함께 유대의 3 대 종파의 하나이며 바리새인들과는 적대적인 파당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서든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13 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서로 적대적이면서도 예수님을 공격함에 있어서는 연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할 때 저는 시편 2 편 2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i)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사상(철학)을 대표하는 세 개의 그룹으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를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는 실질적 자치기관인 산헤드린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반대하고 경쟁하고 적대시하는 조직들이었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사탄의 역사는 원수로 지냈던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다정한 친구가 되어서(눅 23:12, 현대인의 성경)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 장에서는 서로 적대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13-17 절)과 사두개파 사람들(18-27 절)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교회와 제자들인 우리를 대적하여 공격하는 사탄의 우리들은 연합전선을 펴서 함께 우리를 연속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b)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 이외에는 모든 전승을 부인하였고, 내세도, 부활도, 천사도,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유전(遺傳)의 위험은 피하였지만, 무익한 세상적인 열심과 인간의 이성애 절대적 기준을 두는 오류(mistake)에 빠져 들어갔다(Alford)”(호크마)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외식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참고: 막 7:8, 개역한글) 혹은 우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마 15:3, 개역한글)는 교훈과 무익한 세상적인 열심과 인간의 이성애 절대적 기준을 두지 말고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기준을 뒤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c)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은 사람은 죽음과 더불어 영혼과 육체가 다 없어진다고 믿었다(호크마)는 말을 생각할 때 만일 지금도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사람은 죽음과 더불어 영혼과 육체가 다 없어진다고 믿고 있다면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나게 먹고 마시면서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할 위험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참고: 사 22:13, 현대인의 성경). 누가복음 12 장 19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또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아 쌓여 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다.”
 누가복음 17 장 27-30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자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내가 올 때에는 롯의 시대와도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파종하고 집을 지었지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내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럴 것이다.”

(d)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당원들의 실패를 보고(막 12:13-17) 자신들의 입장과 논리로 예수님을 굴복시킴으로 예수님과 함께 경쟁자들을 제압하여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호크마)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는 영적 우월감이 드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어제 목요일 사랑하는 아내와 막내 딸과 예은이의 생일 축하 식사를 미리 하면서 저는 예은이에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서나 주님 안에서 형제 또는 자매 관계에서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처럼 우리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 상대방 형제나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죄를 우리가 충분히 범할 수 있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자세는 바로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심지어 만일 우리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리새인처럼 기도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눅 18:11-12).

(e) 사두개파 사람들이 신명기 25 장 5-6 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에게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19 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한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유혹)하였을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생각났습니다(마 4:6). 인용하되 마귀는 구약 성경 시편 91 편 11, 12 절을 잘못 인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서[참고: 신 12:32, 현대인의 성경 -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하던지 질문을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22 장 18-19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이 책에 쓰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마땅히 무죄 판결을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이신데 ...

마가, 마태, 요한은 군중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명절의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을 기록하였지만(막 15:8-11; 마 27:15-21; 요 18:39-40) 누가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군중에게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눅 23:4)하는 말씀과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억지를 부리며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이 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에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외쳐댔다”](5 절)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게 되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말씀(6-15 절)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말씀들 중에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4 절)한 말씀과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5 절)한 말씀만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군중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예수님)에게 죄가 없도다”(눅 23:4).

(a)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군중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합니다”하고 고소하였지만(1-2 절, 현대인의 성경) 빌라도는 그 3 가지 고소 내용[(1) 민심을 현혹하여 질서를 위협하였다, (2) 로마 당국에 바치는 세금을 거부하도록 백성을 선동했다, (3) 자칭 왕이요 메시아라고 지칭하여 왕권에 도전했다(호크마)] 중 마지막 세 번째 고소 내용에 관해서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하고 묻고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하고 말씀하시니까(3 절)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현대인의 성경)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소”](4 절)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i) 이렇게 누가는 빌라도 총독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분명하게 기록한 반면에 마태와 마가는 빌라도의 처신이 우유부단했다는 사실을 한층 더 뚜렷이 부각시켰습니다. 즉,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대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석방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마 27:13-18; 막 15:4-10)(호크마).

(b)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무죄 판결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2a)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히 4:15, 현대인의 성경), (2b)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고후 5:21, 현대인의 성경).

(i)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 형벌을 받아 처형을 당했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시체를 밤새도록 그대로 두지 말고 그 날에 그를 매장하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체를 그대로 두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신 21:23, 현대인의 성경).

-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였습니다. 즉,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3).

- 그 결과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엡 1:7),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댓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골 1:14).

(2)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고소자들인 대제사장들과 군중은 예수님에 관하여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하고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눅 23:4-5).

(a) 고소자들이 더욱 강하게 말했다(헬라어 의미는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은 그들은 빌라도의 무죄 판결에 결코 승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호크마).

(i)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칭의)(롬 4:25). 우리는 이 하나님의 판결에 믿음으로 겸손히 승복해야 합니다!

(b) 그들이 말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활동 영역이 “온 유대”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인 예루살렘까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활동 영역은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요 4:1-42)와 갈릴리, 베레아(막 10:1), 데가볼리(막 5:20), 가이사랴 빌립보(막 8:27), 이두매, 두로, 시돈(막 3:8) 등 이방 지역까지 포함하는 팔레스틴 전역이었습니다(호크마).

(i) 주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 지경을 넓혀주시길 기원합니다[참고: 야베스의 기도 내용 중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대상 4:10)].

(c) 고소자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선동했다(현대인의 성경)](눅 23:5)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소동케 하다’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흔들다’, ‘충동하다’, ‘동요시키다’, ‘선동하다’입니다(막 15:11)(호크마).

(i) 고소자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있다고 누가복음 23 장 2 절에서 이미 말했는데 5 절에 와서는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하고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이 강력하게 고발하는 주장은 단순히 예수님이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가르쳤다는 것(2 절)이 아니라 백성을 선동했다는 것(5 절)으로서 빌라도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더욱 거세게 예수님을 고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임을 밝힌 것은 당시 폭력 혁명을 추구하던 헤롯당 저항 운동의 근거지인 갈릴리와 관련 지으려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폭력적 반란을 일으킬 선동자라는 인상을 빌라도에게 강하게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호크마).

- 지금도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을 총동시켜 소동을 일으키며 교회를 요란케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참고: 행 21:30). 사탄은 악성 루머(소문)까지 퍼트리게 만들어서 교회의 평화를 깨고 질서를 무너트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는(제거하는) 일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탄의 전략인 총동(질), 소동(요란), 소문 및 폭행을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 평화가 있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참고: “사탄의 전략 (4)” - https://blog.naver.com/kdicaprio74/22216869117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만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으신다면 ...

예수님의 일행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군중들과 함께 그 곳을 나갈 때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나고 묻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디매오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하고 외쳤습니다(마가복음 10:46-47; 누가복음 18:35-38, 현대인의 성경; 참고: 마태복음 20:29-30, 현대인의 성경). 앞서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바디매오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하고 외쳤습니다(마가복음 10:48; 누가복음 18:39,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마가복음 10:49; 마태복음 20:32; 누가복음 18:40, 현대인의 성경) “그를 불러오너라”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소경에게 “잘됐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하였습니다(마가복음 10:49,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소경이 걸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주님), 눈,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하고 대답하였습니다(50-51 절, 현대인의 성경; 참고: 누가복음 18:41,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마가복음 10:52, 현대인의 성경).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누가복음 18:4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해 됩니다:

- (1) “예수님의 일행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군중들과 함께 그 곳을 나갈 때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막 10:46, 현대인의 성경)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든 생각은 왜 마가는 거지 “바디매오”가 “디매오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디매오”란 이름의 뜻은 “존경”인 반면에 “바디매오”란 ‘아들’이란 뜻의 ‘바’와 ‘디매오’의 합성어로서 ‘디매오의 아들’이란 뜻이기에 “바디매오”는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인터넷). 바디매오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에 의탁하여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였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에게서 버려져서 아버지의 이름 디매오만 알고 있는 불쌍한 한 인간이었을 지 모릅니다(인터넷). 호크마에 의하면 마가가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라고 기록한 이유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한 이방인 수신자들을 위해 주해적 설명을 부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호크마).

(2)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하고 말해 주었다(막 10:46-47; 눅 18:35-37,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아무래도 바디매오는 소경이었기에 귀가 많이 밝았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막 10:48, 현대인의 성경) “지나가는 소리”(눅 18:36, 현대인의 성경)를 들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 소리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을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36 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왜 거지 바디매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16 장을 보면 “한 부자” “집 대문 앞에” 누워 있었던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려”하였다(19-21 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지 나사로의 관심은 굶주린 배를 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 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였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줄 알고 바라보았으나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2-3, 5-6 절,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앓은뱅이의 관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이나 금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매오의 관심은 돈도 아니고 굶주린 배를 채우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눈이 뜨게 되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막 10:51; 마 20:33; 눅 18:41). 요한복음 9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로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1 절, 현대인의 성경)에게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못에 가서 씻어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6-7 절, 현대인의 성경). 복음성가 “실로암” 가사가 생각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그대 눈 속에 여명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3)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눅 18:37, 현대인의 성경)하는 말을 듣고 소경 거지 바디매오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하고 외쳤다(막 10:47; 눅 18:37-38, 현대인의 성경; 참고: 마 20:30,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첫째로 드는 생각은 갈급한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야(전해야)한다는 교훈입니다. 둘째로 드는 생각은 지금 저의 심정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Lord, have mercy on me)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 장 13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리(세무원)의 기도가 자꾸만 생각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세무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하고 계십니다(롬 5:20, 새 번역).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고후 12:9).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1 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 앞서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바디매오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하고 외쳤다(막 10:48; 눅 18:39,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이 죄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13 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마음 속으로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멈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저에게 뭐라고 말해도 어떻게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단할 수 없는 저의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새 번역)](딤후 1:15)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막 10:49; 마 20:32; 눅 18:40, 현대인의 성경) “그를 불러오너라”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소경에게 “잘됐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하였다(막 10:49,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매오의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47 절, 현대인의 성경),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48 절, 현대인의 성경)하는 부르짖는 큰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시편 145 편 18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부르짖는 모든 자, 곧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하신다.” 아멘입니다! 시편 10 편 17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사무엘하 22 장 7 절(시 18:6)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소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네.”

우리가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 찬송가 528 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생각납니다: (1 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2 절)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받고 못들은 체 하려나, (후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래서 저는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빙니다 …”(새 찬송가 214 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1 절): (3 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4 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후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6)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소경 거지 바디매오는 겹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주님), 눈,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하고 대답하였다(막 10:50-51, 현대인의 성경; 참고: 눅 18:41,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요한복음 21 장 7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 두었던 겹옷을 얼른 걸치고는, 물속으로 급히 뛰어들었다”(쉬운 성경). 바디매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겹옷을 벗어 던진 반면에 옷을 벗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겹옷을 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겹옷을 벗어 길에 폄다”(눅 19:36,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난 바디매오를 생각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마르다가 자기 여동생 마리아에게 귓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하고 알려주었더니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요 11:28-29,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제 자신에게 반영하며 적용해 볼 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나” 주님께 달려나아가고 싶습니다. 복음성가 “주 말씀 향하여” 가사가 생각납니다: “하늘의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7)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주님), 눈,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하고 대답하였다(50-51 절, 현대인의 성경; 참고: 눅 18:41,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만일 주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할 때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내용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나의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소서. 주는 나를 땅의 티끌처럼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대하 1:9-10,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는 이유는 저의 한국어 이름이 “지원”으로서 그 의미는 ‘지혜의 으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부모님이 저에게 그 이름을 저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붙잡으시는 말씀이 다니엘 12 장 3 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현대인의 성경)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1 장 5 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님께 ‘지혜를 주십시오’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 (8) 예수님이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막 10:52, 현대인의 성경).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눅 18:43,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믿고 그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매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히 12:2,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하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일 뿐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누가복음 20:17,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 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기에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렸다(마가복음 12:10-12; 마태복음 21:42-46; 누가복음 20:17-19,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막 12:10-11, 현대인의 성경; 참고: 마 21:42, 현대인의 성경)[…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눅 20:17,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표현은 신약성경 중에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막 12:10; 마 12:3, 19:4, 21:16).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모두 성경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호크마).

(a)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만 나오는 “너희는 …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표현의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막 12:12, 현대인의 성경).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하고 말씀하셨을 때 진정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 시편 118 편 22 절을 읽지 못하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그들은 시편 118 편 22 절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란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버린 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i)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그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엡 2:20,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버리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행 4:10-11). 그 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으셨기에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하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막 15:34).

-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죽인 것처럼(막 12:6-8)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성자(1:11)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 이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하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일 뿐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벧전 2:6-8, 현대인의 성경).

모른다고 하기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말해 보아라”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두렵다”[“...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누가복음 20:6, 현대인의 성경)]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우리는 모르겠소”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11:27-33, 현대인의 성경; 참고: 마태복음 21:23-27; 누가복음 20:1-8).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 (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하고 따져 물었다(막 11:27-28, 현대인의 성경)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권한”에 대하여 2 개 질문들을 던졌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그들은 산헤드린의 대표자들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삼은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산헤드린을 공식적으로 도전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호크마)[여기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으로 그 구성원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율법학자들) 중에서 선출되었습니다(인터넷).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인터넷)]. 또한 그들의 숨겨진 의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는 선언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호크마). 이러한 유도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마 22:15, 현대인의 성경).

- (a) 그들의 두 유도 질문인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소?”와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막 11:28, 현대인의 성경)는 예수님의 권한이 신적인 것이냐 혹은 인간적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호크마). 만일 예수님의 권한이 신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므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예수님의 권한이 인간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산헤드린을 공식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에게 공적인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호크마).

(2)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던진 2 개 질문들에 답변을 하시기보다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하고 말씀하신 후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말해 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막 11:29-30,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예수님에게 2 개 질문들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던지셨는데 그 한 가지 질문이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왔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통해 참된 예언자로 대중적인 인정을 받았었고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요 1:29-37; 3:26-30)(호크마).

(a)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메시아(그리스도)라는 진리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 그렇다고 그들은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왔다고 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예언자)로 여기고(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 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c)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마 21:26, 현대인의 성경)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반격을 받아 스스로 딜레마(dilemma)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호크마). 그래서 그들은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계속해서 연구(호크마)한 결과 “우리는 모르겠소”하고 예수님에게 대답하였습니다(막 11:33,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33 절, 현대인의 성경).

(3)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창세기 3 장 1-3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에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아예 뱀의 말을 듣지도 말고 뱀과는 말을 섞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교활한 뱀이 다가와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1 절, 현대인의 성경)고 물어도 답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예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39 장에 나오는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그가 섬기고 있었던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1 절)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10 절)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청해도(7 절)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10 절). 그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10 절).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고 그 여인만 있었습니다(11-12 절). 그 때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들고 자기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하니까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든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12 절, 현대인의 성경). 요셉처럼 이래야 하는데 성경 장언 7 장에 나오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젊은이처럼(7 절)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간 것처럼(8 절) 하와는 멀리해야 할 선악과를 가까이 가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그 열매를 따 먹”을 정도의 거리였다면(6 절)] 멀리해야 할 뱀을 가까이하여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창 3:1ff). 그 뿐만 아니라 하와는 뱀과 말을 섞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뱀의 말을 듣지 말고 아예 무시해 버리고 그 곳을 떠났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탐심 가운데 뱀의 말을 중요시하고 있었다고 증거입니다.

(a) 신명기 5 장 27 절을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저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하는데 저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사탄의 말 듣기를 더 속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저는 저의 생각의 영역에서 사탄의 거짓말과 섞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불쑥불쑥 자꾸만 사탄의 달콤한 꾀속말이 생각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사탄의 미혹의 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제 자신에 욕심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약 1:14). 그 결과 진리를 떠나(5:19) 시험을 받아(1:14)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이 여겨주시사 회개의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주 음성 외에는”(새찬송가 446 장)]. 그러므로 제가 더 이상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을 은근히 좋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며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을 더욱더 맛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미련의 으뜸인 제임스 내 영혼아, 어째서 네가 낙심하며 어째서 내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갈릴리를 지나가게 되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여행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거의 전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마가복음 9:30-31,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기는커녕 묻기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31-32 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오는 도중에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셨는데 그들은 누가 가장 위대하냐(크냐) 하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잠잠하였습니다)(33-34 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앉으신 후 열 두 제자를 불러 놓으시고 “누구든지 으뜸(첫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섬기는 자)이 되어야 한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35-37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 (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거의 전념하시되 자기가 사람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막 9:31,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 즉 목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역에 전심 전력을 하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복음을 전하는데 일에 더욱더 전념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2)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기는커녕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31-32 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어쩌면 그 이유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했기[“큰 슬픔에 잠”겨 있었기(현대인의 성경)] 때문이요(마 17:23)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숨겨져”있었기 때문(눅 9:45, 현대인의 성경)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요 또한 그 가르치심에 대해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던 이유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매우 근심했기 때문(큰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망보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성도의 죽음을 슬퍼합니다(살전 4:13).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시는데(시 116:15,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살전 4:14, 현대인의 성경). 그러기에 그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고전 15:52-53, 현대인의 성경).

(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오는 도중에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셨는데 그들은 누가 가장 위대하냐(크냐) 하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잠잠하였다)(막 9:33-34,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3 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누가 가장 위대하냐”(현대인의 성경)]하고 다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와중에(적어도 머리로나도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위대하냐)?”하고 다툴 수 있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기가 지금도 교회를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인 우리는 ‘서로 누가 더 크냐 혹은 더 높냐?’하고 마음 속으로 우쭐대면서 교회 장로나 권사가 되려고 얼마나 애쓰고 속 보이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교회의 직분이 상품화되어 계급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차서 교인에서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되는 길이 마치 세상적인 성공의 사닥다리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나이가 그 정도 되었으면 다들 장로가 되어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주님 보시기에 지금 교회인 우리가 너무나 교만한 것 아닐까요?

(4) 예수님은 열 두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으뜸(첫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섬기는 자)이 되어야 한다”(막 9:35,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제 자신의 이름인 “지원”의 뜻이 생각났습니다: “지혜 ‘지’자, 으뜸 ‘원’자. 즉, 저의 이름의

뜻은 ‘지혜의 으뜸’인데 주님께서는 약 21 년전 저를 한국 서현교회에서 미국 승리장로교회로 인도하셔서 담임 목회를 하게 하시면서부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자꾸만 그리고 계속해서 들춰내셨습니다. 즉, 저는 특별히 그 때부터 제가 ‘미련의 으뜸’이라는 사실과 현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나 낙심되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매주 수요일 예배 때마다 성경의 “지혜의 책”을 묵상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했었을 때 성령님께서 저의 미련함을 더욱더 들춰내셨습니다. 그 때부터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붙잡고 기도케하신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 장 5 절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 장 35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모든 사람의 끝” 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으뜸”이 아니 “끝”, 성김을 받는 ‘상전’이 아니 성기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 교훈을 묵상할 때 제가 “끝”이 되기 위해선 제 자신의 “끝”인 ‘죽음’도 당연히 묵상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땅에서의 예수님의 “끝”인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할 때서야만이 제 자신이 “모든 사람의 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인 제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 (5)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교만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막 9:36-37, 현대인의 성경)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10:13, 현대인의 성경). 아니, 마가복음 9 장 36-37 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라는 말씀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그 다음 장인 마가복음 10 장 13 절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린 아이들을 손을 얹어 축복해 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을 수 있나요? 어떻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리도 속히 여기고 불순종하였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저의 경우는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교회 목양실에 들어가서 곧장 그 말씀의 불순종한 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제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시편 42 편 5, 11 절과 43 편 5 절

말씀을 제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며 이렇게 기원케 하였고 지금도 그리하고 계십니다:
'제임스 내 영혼아, 어째서 네가 낙심하며 어째서 내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니 믿는 나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마가복음 16:12-14)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여기서 "그들 중 두 사람"은 누가복음 24 장 13-32 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들(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임, 18 절)을 가라킵니다.

(a) 그들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25 절) 중에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나서야(31 절) 예루살렘에 돌아와 모여 있었던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33 절)에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34 절)와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했습니다(35 절). 그러나 그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막 16:13).

(i)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14 절).

(2) 혹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a) 주님께서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므로 살아 운동력있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